



제목	Ancient Jewelle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Dönmez Offset Ankara
발행일	1999. 1.
저자	F. R. Işık Bingöl
출판도시	Ankara
페이지수	237
ISBN 또는 ISSN	978-9751721150

#### 내용 요약

태초부터 장신구는 종교적인 목적 또는 단순히 개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관심 대상이었다. 처음 등장한 장신구 소재는 돌, 뼈, 조개껍질 그리고 상아 같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거나 유기질이었으나, 금속 세공기술의 발달로 청동, 금, 은, 합금 등이 장신구의 주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책은 터키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 소재에 각종 보석이 장식된 장신구를 시대별로 모아 정리한 도록이다.

책의 도입부에는 금 세공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관형 기법, 와이어 기법, 캐스팅 기법)과 장식 기술(돋음 기법, 상감 기법, 금줄 세공, 그레늘, 에나멜, 길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머리장식, 목장식, 손과 팔장식, 복식에 부착되는 장식, 시신을 위한 장식으로 구분하여 장식이 묘사되어 있는 프레스코화, 모자이크, 조각, 부조물 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은 죽은 자를 위한 입과 눈, 귀를 덮는 장식으로서 매장시 시신의 입과 눈, 귀를 덮는 방식은 동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장례의식이며, 시신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러한 매장용품들을 보면 기원전 3000~2000년 경 유물의 경우 단순한 달걀형이 세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원전 8세기에는 매우 정교한 형태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